

과목명: 대학 글쓰기 003

학과명: Endicott 자율융합학부

이름: 박효정

학번: 202210200

평: 스토리텔링 능력과 풍부한 감수성이 매우 돋보이는 글임. 다만 각주가 없다는 점이 아쉬움. 즉, 감성적 능력이 객관적인 근거 자료와 맞물릴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제목: 지적 외계생명체가 인간에 대해 알고자 책 한 권을 요구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인간실격

2-2. 왜 이 도서인가

3. 결론

참고문헌

## 1. 서론

“부끄러운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든다. 일본의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가 1984년 발표한 소설인 인간 실격의 도입부이다. 지적 외계 생명체가 인간에 관해 잘 알 수 있는 도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위대한 작가가 들어도 명확한 답을 해주기 매우 어려운 질문일 것이다. 인간은 정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서로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기 때문이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성향의 인간들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에게 인간이 무엇이나 물어본다면 선행인류의 종류들(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등)을 읊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다양한 인간관에서 인간을 설명할 것이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도 확신을 가지고 인간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본성(性)은 마음(心)과 태어남(生)의 두 자가 합성되어 이루어진 글자로, 글자 뜻 그대로는 ‘태어나면서 갖춘 마음’ 이라는 의미이다. 즉,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으며, 누구나 설득할 만한 뒷받침이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여러 종류의 인간을 하나로 정의한 후 일반화 하는

것은 애초에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다. 하지만 이 필자는 고민하지 않고 지적 외계생명체에게 ‘인간실격’이라는 도서를 추천해줄 것이다. ‘인간실격’의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것을 왜 추천 해줄지에 대해 궁금할 것이고,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것이다. 이번 에세이를 통해 필자는 이 궁금증을 풀어보는 동시에, 인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 2. 본론

### 2-1. 인간실격

이 인간 실격이라는 도서는 '나'라는 화자가 주인공 오바 요조의 3편의 수기를 읽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첫 번째 수기는 주인공인 요조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다. 요조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에게도 피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다.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늘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한다. 그러던 그는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바로 '상대가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삶'이다. 다시 말해, 가면을 쓰고 자신의 진심을 감추며 타인을 웃게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거부감을 줄이고자 한다. 그의 마음 속에서 그러한 광대짓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생물들, 즉 인간들을 마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다. 요조는 광대짓을 통해 자신이 사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태도와 행동을 정반대로 일관하며 결국 타인들로부터 호감을 얻어낸다. 요조의 겉모습은 장난기 가득한 웃긴 아이였지만, 속으로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불신이 더해가는 암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두 번째 수기는 중학생 시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요조는 여전히 광대짓을 하며 자신을 감추고 있다. 이 시절에 요조는 미술을 배우고 있는 호리키라는 여섯 살 많은 남자와 친구가 되었다. 호리키는 방탕하고 퇴폐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이었다. 요조 또한 그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에 대한 공포를 가진 요조는 결국 호리키를 거부하지 못하고 함께 어울리며 퇴폐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호리키는 요조에게 술, 담배와 같은 거칠고 난잡한 삶을 사는 방법을 소개해준다. 그러다가 술집 여종업원 쓰네코와 교제를 시작한다. 쓰네코는 요조에게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이야기 하는데, 요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 가진 고통을 통해 연결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얼마 후 쓰네코는 요조에게 같이 죽어버리자고 애길 하는데, 그녀와 요조에게 세상이란 지긋지긋한 것이었기에, 두 사람은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동반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쓰네코는 죽고, 요조만 살아남는다. 그리고는 한없는 비참함을 느

끼게 된다.

세 번째 수기는 동반자살미수 사건 직후에서 이어진다. 혼자 살아남은 요조는 깨어나자마자 동반자살공범으로 기소된다. 풀려난 요조는 호리키의 집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시즈코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 요조는 시즈코와 동거를 시작한다. 그렇지만 요조는 늘 술독에 빠져있었다. 시즈코의 딸이 진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되고, 요조는 떠나기로 결심한다. 이후 요조는 한 스탠드바에 머물던 중 근처 담배가게 아가씨인 요시코를 만나 새롭게 동거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요조는 요시코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그렇지만 요조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요조는 다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한다. 거듭되는 수치 속에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다시 자살을 결심한 날 호리키가 찾아온다. 그는 전에 보인적 없던 부드러운 미소로 요조를 차에 태웠고 그때 요조는 처음으로 호리키에게 신뢰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정신병원, 그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지만 정신병원에 끌려 왔기 때문에 광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요조는 그 순간 자신을 ‘인간실격’이라 생각한다.

## 2-2. 왜 이 도서인가?

아무리 이 책의 줄거리를 들어도 왜 이 책을 소개 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또한 이 책을 필자에게 추천 받아 직접 읽어 본 외계생명체는 나에게 왜 이런 책을 추천해줬냐며 필자에게 버럭 화를 낼지도 모른다. 지적 외계생명체는 어느 정도 인간이 어떤 생물체인지 어렵짐작은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혹은 다른 동물에서 볼 수 없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동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적외계생명체가 생각하는 인간과는 정반대인 요조가 나오는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러한 요조의 모습도 ‘인간’의 모습 중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실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 적어도 이런 삶과 반대로 살고 있는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말이다. 하지만, 정말 소설에만 나오는 가상 인물일까?

첫 번째. '나는 항상 인간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이라는 문장은 요조의 모든 불안과 타인에 대한 신뢰의 부재를 보여주는 매우 현실적이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 형제와의 교감과 소통을 시작으로 유치원, 학교를 거쳐 직장생활

을 하게 되면서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소수의 인간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대인관계를 유달리 힘들어 하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대 인기피증 또는 대인공포증에 의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대인관계를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인공포증으로 인해 대인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 수준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인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상황에 노출되거나 또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불안감이 발생하게 되고, 심할 경우 공황 발작이나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신체적인 증상은 보통 주변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 눈치를 잘 보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을 마주치면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해 자신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말을 보니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는가? 바로 인간실격의 주인공인 요조의 한 모습이다. 이 말은 실제로 요조처럼 타인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요조는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은 채 끌려간 후, 자신이 ‘인간실격’의 순간이라고 정의한다. 요조에게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요조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을 인간실격이라고 규정한 그 순간이 어찌면 그가 진짜로 인간 실격된 순간일지도 모른다. 자기 운명에 대한 주체적 태도가 인간의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실제 인간들 중 타인이 삶을 대신 정해주어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다. 바로 부모의 그늘에서 사는 자녀들이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부모의 연장선상으로 느낀다. 고압적인 부모의 그늘에서 자란 자녀들 또한 인정받기 위해 부모의 성공을 모방하려 할 수도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책의 저자인 다자이 오사무에 대한 내용이다. 다자이 오사무는 요조와 동일하게 부유층 가문에서 태어났다. 형제들이 많았던 요조는 어머니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유모의 보살핌에 의해 자랐다. 심한 수준의 예민함을 가졌던 다자이 오사무는 좋은 옷차림과 특별한 대우에 의해 차별화된 시선은 부담스럽고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주변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해 항상 불안감을 가졌다고 한다. 이러한 다자이 오사무의 모습은 놀랍게도 요조와 많이 닮아있다. 어찌면 다자이 오사무가 요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들을 총정리 한다면, 인간 실격에 나오는 인간이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을 숨기며 융화되고자 한 ‘대 인기피증’의 모습, 자신의 삶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삶을 가진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지적외계생명체에 소개해주고 싶은 인간의 모습이다.

### 3. 결론

당신은 지적 외계 생명체에게 인간에 대해 잘 알려주는 도서를 추천 하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서적을 떠오르는가? 일반적인 인간의 내용이 담긴 일반적인 도서를 추천해줄 것인가. 그렇다면 일반적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저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선택권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일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이다.

인간인 우리도 인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아무리 위대한 작가가 인간에 대해 잘 설명한 책을 외계 생명체에게 소개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겉모습일 뿐, 진정한 인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인기피증, 타인에 의해 삶을 적용하려는 인간, 이기적 마음이 큰 인간의 모습을 모두 가진 요소를 통해 이러한 모습도 인간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 참고문헌

다자이 오사무, < 인간실격 >, 민음사, 2012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본성이란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인간>, 네이버 지식백과

글필랜드. <다자이 오사무 : 인간 실격 줄거리>, 2021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미디어 경청, <다자이 오사무에 대한 생각>, 이수민, 2022